

“성숙한 사회 문화 기반 구축”

최경식 남원시장, 새해 주요 남원시정 운영계획 밝혀

최경식 남원시장은 2일, 2층 회의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2024 남원시 주요 시정 운영계획을 밝혔다.

최 시장은 시민 대통합 실현을 위한 최 소통과 화합에 주력하며, 새로운 변화와 혁신의 성장통에서 발생하는 갈등에 대한 예방과 대응을 마련하는

등 성숙한 사회문화 기반 구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조직개편을 통해 일하는 성과 중심의 조직을 완성하는 한편, 시장 위주에서 국장, 부시장 중심의 책임행정을 추구하고, 전결권 확대 및 보고 간소화를 실시할 것과 시장은 국회, 중

양부처, 출향인, 시민 등 대외적인 현장 활동 집중으로 외연 확장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본격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시장 주요 사업에 대한 밑그림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해 △생활인구 10만 유치 노력 △전북대 남원글로벌캠퍼스 본격 추진 △드론문화체험관 등 드론 레저·스포츠·관광 인프라 구축 및 드론기업 유치 추진 △에코 에너지 스마트팜 혁신단지 조성 박차 △문체부 글로벌축제 육성 선정 총력 △남원일반산업단지에 항공산업, 바이오산업, 데이터센터 등 관련 교육·연구기관 및 강소기업 유치 활동 집중 추진 △신선농업 이주 정착복합단지(2,500세대) 조성 △한파우 아트밸리 내 경찰청 수련원(146실) 및 지방행정공제 포바 호텔 등 대규모 숙박 단지에 대한 민간투자 유치에 나설 것을 밝혔다.

또한 △소방심사수련원 △글로벌융복합교육기관 △항공안전기술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공공기관 이전 우위 선점 활동을 추진 하는 등 시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남원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최경식 남원시장은 2일, 2층 회의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2024 남원시 주요 시정 운영계획을 밝혔다.

최경식 시장 “변화하는 새 희망 남원 기틀 마련”

남원시 2024년 시무식 개최

남원시는 2일,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변화하는 새 희망 남원 기틀 마련'을 위한 2024년 시무식과 함께 대장정에 돌입했다.

이 자리에서 최경식 시장은 “민선 8기 3년 차로 접어드는 올해 ‘변화하는 새 희망 남원’의 기틀 마련을 위해 더 거침없이 도전하고 행동하겠다며, 이를 위해 무엇보다 자신과 시진 공직자는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고 당연한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면서 특별히 미래 신성장산업 육성으로 새롭게 도약하는 경제도시, 교육거점도시로 남원을 업그레이드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 쏟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최 시장은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 “서남대 부지매입과 주변 환경을 정비하고 전북대학교와 협력 계획을 수립해 전북대 남원 글로벌캠퍼스 설립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미래 수송산업, 바이오산업 등 지역특화산업과 관련한 강소기업 유치를 위해 물류비, 숙소 등의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기본 기업에 대한 생산인력 지원, 판로 확대 지원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



남원시는 2일,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변화하는 새 희망 남원 기틀' 마련을 위한 2024년 시무식과 함께 대장정에 돌입했다.

을 적극 추진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일자리로 여동하는 남원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한 최 시장은 “전통과 첨단이 어우러진 글로벌 아트도시로 문화와 관광이 성장하는 남원을 만들기 위해 올해 광한루원 중심의 도심권 관광 동선을 한파우 아트밸리와 연계 확장하여 체류형 관광지를 만들어 나가고, 현재

한파우에 도자 전시관, 키즈 아트랜드, 스마트 루나, 달빛정원, 아트 아카이브관 조성 등이 포함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있는만큼 한파우 아트프린트를 세워 광한루원과 한파우 아트밸리 관광지를 연계시켜, 국내외 관광객과 시민 모두가, 즐기며 체험하고 머무르고 싶은 남원관광 1,000만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심 민 군수는 2일 새로 부임한 설상희 부군수, 국실과원소장들과 함께 소총사 참배를 시작으로, 2024년 임실 군정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시무식을 가졌다.

심민 군수 “관광산업 성공적 미래”

임실군, 2024 시무식 개최

임실군이 갑진년 새해 관광산업이 새로운 미래를 여는, 천만관광 임실시대 실현을 위한 비상하는 정통의 해를 만들 것을 다짐했다.

심 민 군수는 2일 새로 부임한 설상희 부군수, 국실과원소장들과 함께 소총사 참배를 시작으로, 2024년 임실 군정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시무식을 갖고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을 새롭게 출발하는 만큼 새로운 밝은 미래를 향해 모두 함께 힘차게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이날 군청 문화강좌실에서 본청 실과소장과 12개 읍면장, 직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시무식에서 심 군수는 “지혜와 힘, 번영을 상징하는 정통의 기운을 받아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 풀리는 축복과 더불어 우리 군도 더 크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한다”는 인사로 포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먼저 “육정호와 임실치즈테마파크, 성수산, 사선대 등 지역 특화 지원을 연계한 명품 관광벨트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육정호 호텔 건립 등 체류형 관광기반 확충 에코누리 캠퍼스 △대형민자 유치를 통한 케이볼카와 집라인 관광휴양시설 △순암특화단지 한우전문음식점·로컬푸드 직매장 건립 등 실행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2023년 한국 관광의 별 임실치즈테마파크는 유럽형 장미공원 조성을 통해 봄에도 장미꽃과 함께하는 치즈축제를 열어 사계절 축제 테마관광지로 만들고, 임실치즈 지정환 기념관의 치즈체험관광 랜드마크 등을 내세웠다.

아울러 국비 90억원 등 총 180억원의 투입될 세계명경테마랜드 조성사업과 성수산 체류형 산림휴양 명소화, 관촌 사선대 카페형 판매장 구축 등도 핵심 사업으로 제시했다. 농업 분야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추진과 농업기술센터 정사와 미생물매양센터 건립과 저지종 원유 등 임실치즈 경쟁력 강화와 관내 유제품 학교 급식 등 판매망 확대 계획을 밝혔다.

/임실=진홍영 기자

임실군, 제29대 설상희 부군수 취임

임실군 제29대 부군수로 설상희 전북도 건설교통국 주택건축과장이 2일 취임했다.

설 신임 부군수는 이날 시무식을 시작으로 주요 기관 방문과 조직을 둘러보는 것으로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설 부군수는 임실군 덕치면 출신으로 완산고등학교, 전북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했으며, 1990년 김제에서

공직에 첫발을 내디뎠다.

이후 전북도청으로 자리를 옮겨 자치행정국 회계과 청사관리팀장, 건설교통국 주택건축과 도시경관팀장, 도민안전실 사회재난과장, 건설교통국 주택건축과장 등 주요 부서를 두루 거쳤다. 평소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며 독보적인 전문성과 탁월한 추진력으로 굵직한 현안 사업을 잘 풀어내는 해결사로 정평이 났다. 설상희 부군수는 “임실군의 부군수 직책을 맡게 돼 매우 영광스럽고, 또 한편으로는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지역 소식통

순창군, 신 성장동력 과제 발굴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순창군이 민선 8기 군정비전을 구체화하고 미래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밑그림을 그리기 위한 분야별 대표 전략과제 발굴연구에 본격 돌입했다.

군은 지난 연말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순창군 미래 신성장 전략과제 발굴’ 연구용역에 대한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순창군의 감정을 활용하여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전략사업을 발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영일 군수와 연구분야별 담당 부서장, 전북연구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진 이번 보고회는 연구책임자를 맡은 (재)전북연구원 김형오 선임연구위원의 연구수행계획 및 부서 협조사항 등에 대한 설명에 이어, 분야별 간부공무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며 내실 있는 용역 추진방향 설정을 위해 논의하는 자리가 진행됐다.

/순창=이양원 기자

순창군, 노인 이·미용 비 지원사업 본격 시행

순창군이 2024년 갑진년 청룡의 해를 맞아 1월부터 65세이상 관내 어르신들의 위생관리를 통한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노인 이·미용비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순창군 노인 이·미용비 지원사업”은 순창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 9,700여명을 대상으로 연간 12만원을 비우쳐카드로 반기별 6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은 해당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7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완료하고 10월에는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또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해 11월 22일에는 관내 53개 이·미용업소 사업주들과 협약을 맺고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과 사업시행에 따른 주의사항 등을 안내했으며, 지난해 12월에는 11개 읍·면 담당공무원들에게 바우처카드 발급 관련한 실무교육도 실시하는 등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치즈

벨기에 출신 지정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